

# 시내버스 소음 피해에 184만원 배상 결정

### 광주 북구 동림동 인근...소음·매연·먼지 피해 주장 야간 소음 수인한도 초과...매연·먼지는 인정 안 돼

거주지 인근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환경 당국이 184여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주민 2명이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지난 11일에 결과를 송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인 2명은 2006년부터 거주지에서 5m 정도 떨어진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나오는 매연, 소음으로 수면 방해를 겪고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차지에서는 평일 하루에 버스 8대가 평균 15분 간격으로 128회 왕복 운행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회차지 이전을 검토했지만,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피신청인들은 회차지 노면을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경계에 나무 360그루를 심는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소음·진동 전문가와 함께 측정한 야간 소음도는 54dB(A)다. 이는 수인한도(공해·소음을 참을 수 있는 한도) 45dB(A)를 초과한 수치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개연성이 인정됐다.

반면, 매연과 먼지로 인한 피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시내버스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매연 발생이 매우 적고, 3년간 받은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서에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량이 모두 기준 이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버스 운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위원회는 차량 소음 크기와 실제 피해 기간,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공공의 편익, 회차지 노면 아스팔트 포장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84여만원 배상을 결정한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시내버스 회차지 모습.

과 주차장식 변경 등 피해 저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184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추후 도로, 철도 등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 적절한 조정 방안을 연구하고 피해 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신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지자체에서 버스 회차지에 대한 적절한 입지 선정 및 운영 시 방음벽 설치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매연이 발생하지 않고 저소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무공해차(전기·수소버스 등)를 조기에 도입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보성경찰서장, 보성교통 상무이사 감사장 수여

박임규 보성경찰서장은 지난달 26일 보성교통을 방문하여 자살 기도 우려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던 박상근 상무이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박상근 상무는 지난달 4일 가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카톡 메시지를 남긴 후 집을 나가 행방이 묘연했던 60대 여성 실종사건이 발생하자 휴일 야간에 출근하여 차고지에 도착한 버스 블랙박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협조했으며, 실종자가 버스에서 하차했던 지점부터 행적수사를 개시하여 다음날 아침 시 설하우수에 있던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박임규 서장은 “휴일인데도 밤에 출근하여 협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보성교통 상무이사과 회사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 완도해경, 폐기물 해상 불법배출 특별단속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폐유류, 폐어구, 분뇨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상으로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6주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육·해상 입체적 단속을 위해 경비함정 동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드론을 이용하여 해양오염 관리 사각지대를 포함, 순찰구역을 확대해 불법배출 행위를 광범위하게 감시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부두, 해안가에 폐기물 방치, 소각하는 행위 △선박 발생 폐기물 등을 해상에 불법 배출하는 행위 △기타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등이며,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정경은 완도해경 방제과장은 “최근 완도 관광 수요 증가와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에 민원신고와 발생에 대비하여,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 담양소방, 봄철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컨설팅 운영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로 화재 예방하고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공사장 화재 안전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담양소방서는 관내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공사장 및 특정소방대상물(1급,2급) 대상으로 용접·용단 작업 전 사전신고토록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화재예방 컨설팅 지원센터운영을 실시 하고 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비롯 해 ▶용접·용단 안전 매뉴얼 배부 ▶화재감시자 의무배치 ▶임시소방시설 안내(매뉴얼보급) 및 위험물 안전관리 확인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한다

박상래 서장은 “공사현장은 화기 취급과 화재에 취약한 가연물질 사용량이 많아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며 “공사장에서의 화재예방은 관계자들의 협조와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광주 남부소방, 기초체력 증진 위한 소방대원 체력검정

광주 남부소방서는 12일까지 3회에 걸쳐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체력검정은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매년 실시하며, 작년보다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최소인원으로 진행했다.

재난·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신체 근력과 지구력 등을 측정하는 체력검정은 왕복 오레달리기 및 제자리멀리뛰기 등 6개 종목으로 실시됐다.

정선보 남부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의 체력은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꾸준한 체력관리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학비노 광주지부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 촉구

### “교육부·교육감이 결단 내려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2일 “초등스포츠강사는 매년 재계약 여부 때문에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

환을 촉구했다. 광주지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초등스포츠강사는 아이들을 위해 14년째 학교체육 활성화, 교원

의 체육수업에 대한 부담 경감 등에 헌신하고 있다”며 “이제 초등스포츠강사는 아이들의 꿈과 미래 그리고 학교체육을 위해 현장에 필수적인 구성원이 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부는 “초등스포츠강사는 14년째 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만, 교육청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매년 12개월 계약을 반복하고 각종 수당과 복지제도에서도 학교 구성원들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매년 재계약 여부 때문에 불안에 시달린다.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과 갑질을 견뎌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여성 초등스포츠강사가 임신한 사실로 인해 학교장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 한 여성 스포츠강사는 임신으로 인해 다음 년도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봐 임신한 사실을 숨기다가 유산한 일

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14년을 근무해도 계속근로로 인정 받지 못해 육아휴직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두 자녀의 부모인 여성 스포츠강사는 고용 불안과 근무현장에서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어 결국 일을 그만 뒤야 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부는 “초등스포츠강사는 학교비정규직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13년을 근무해도 1년을 근무해도 급여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광주지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스포츠강사를 즉각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제는 교육부, 교육감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교육공무직원과 같은 처우개선,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민정 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